

사설

일방적 고지서로 등록금협상 물거품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학교당국이 일방적으로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할 수도 있었으나 그동안 협상속에서 등록금 고지서 일방발부를 앉았다고 누누히 강조하던 학교당국이 지난 7일자로 18% 인상된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단투쟁에 맞춰져 있는 것만 보더라도 85년 역사의 우리대학이 온 한해 겪어 온 소용돌이는 그야말로 엄청난 일대전환을 불러 오리라 예측된다.

수서비리는 노정권 퇴진으로 해결

결국 노정권은 수서지구 복해사건을 한 낱 '사건'으로 끝내 버렸다. 매일 쏟아지는 제도언론의 지면은 지자체로 사방팔방 퍼져 있다. 언제나 노정권이 그려왔던 것처럼, 언제나 예상되는 결과였던 한편으로 항상 그 불길한 예상이 맞은 결과에 대한 분노가 이제는 낫설지 않다.

를 지자체 선거로 밀어 부치자라는 그들의 논리는 간단히 성립된다. 지난 9일 보라매공진 집회에 폭로된 4가지 밀약이 이러한 것을 '논리적이고 철저히 뒷받침해주고 있다. 청의대의 독점체질이 결국 수서부회는 저지러졌고, 그 이후의 은폐조작은 집결까지 가세해 일을 꾸민다. 이것이 대한 사실투부는 그동안의 상황으로 비추어 볼때 믿음을 넘어 신념의 차원이다.

열린글터

전입금확충 노력없는 예산편성 학생회로 고지서 반납하는 단결력으로 등투를

등록금 고지서를 받고 나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작년보다 무려 십삼천사천백원이나 올랐기 때문이다. 기쁨이 나 어려울 집안 형편에 1백만 원에 가까운 돈을 마련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나 전입금의 부분은 재단이 투자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등록금으로 전액 출자되기 때문에 매년 등록금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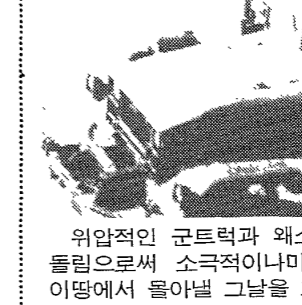
지자체는 여야의 정치흥정

재벌비호 민중의연수서처리 사건을 모두들 아시리라 생각한다. 이번사건은 청와대 관련 의 증거들이 명백히 드러났고 여야 정치권의 공동범죄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정치인이 분명한 것이다.

진상규명의 의지를 목실한체 지자체를 놓은 흥정속에서 김대중은 "보수연립내각의 구성을 통해 노태우통령을 한번 더 살려주겠다"라는 망언을 하더니

자본적지출계획) 재단은 1년에 106억정도의 전입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 (학교법인 학교경영예산 기준명 제5조) 1년 예산이 매년 적자로 편성되어 있다. 작년의 경우 적자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추가경정예산중 17억에 가까운 돈을 건을 짓는데로 더 들어갔다.

초대 사진



위압적인 군트럭과 왜소한 한 민중. 그러나 등을 돌림으로써 소극적이거나 미지에 저항하며 그들을 이땅에서 돌아낼 그날을 그려보았다.

군대에서 죽음도 단순한 사고일뿐

현재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어 군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남가라던 한민중은 군생활을 경험해 보아야 하며 그곳에서의 많은 경험들을 삶을 내실있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대자보 분석

익명성에 의한 자유로움은 대자보매체의 가장 큰 장점이다. 여기서나 글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자칫 과잉된 내용들이 극단적인 표현으로 무책임하게 대충알려 나서는거나 심지어

東國漫評 (East Country Satire) cartoon section featuring a character with a speech bubble and various satirical text.

울며 겨자먹기 '시간표'

지난 11일부터 3일간 실시된 수장신청 정경기간동안 우리교 학생들은 분주함을 떨어야 했다. 수장신청 정경이 폐장이나 변동된 시간에 대해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임내세오

등록금협상을 민중사학으로 윤바로 세우기위해 주야로 고생하시는 총학생을 비롯하여 단대·자치기구, 과학생회 임원여러분, 여러분 위에는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1만명의 학생이 있음을 기억하고 격려하는 것만이 되어주세요.

목errick

■목errick 센넬레, 목errick에서 지금 한사람의 생명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오르는 중문밖 필드아파트에 사는 한이주머니가 백혈병에 걸려 생명이 사슬에 걸려 있습니다.

동막

■우리들의 참여없는 등록금 투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우리들의 경험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터전 이 동막을 우리들의 영원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 수 있는 첫 기회가 바로 등록금 투쟁입니다.

광장

■임내세오(불교90)의 아름다운 태어남을 축하합니다. 부처님이 그대에게 빛줄같은 정을 주리라. -고도

온방글

■힐내세오 동국대학교를 민중사학으로 윤바로 세우기위해 주야로 고생하시는 총학생을 비롯하여 단대·자치기구, 과학생회 임원여러분, 여러분 위에는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1만명의 학생이 있음을 기억하고 격려하는 것만이 되어주세요.

기획연재 올바른 대학생활을 위한 제언

양심을 갖고선 못사는 반쪽의 조국

글 쓰는 차례

1. 삶의 나침반, 철학
2. 사회현실을 바로알자
3.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4. 또 하나의 조국, 북한에 대하여

'죽음의 체제'에 '죽음'으로 항거한 사람들

"나를 버리고 가라, 나를 죽이고 가라, 조국만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의 결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 약한 나를 다 바치마..."(1970.8.9 전태일의 글)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살아간다고 한다. 들으니 하우어 우리의 숭고한 피를 흘려서 이 땅에 영원한 민주주의의 푸른 잎사귀가 번성하도록 할 용기를 그때들은 주저하고 있는가..."(1975.4.11 전진권의 양심선언)

"몇년전 혈육을 부여잡고 말도 잊지 못하는 이산가족의 모습은 이 땅의 현실이며 노동형태, 농민들, 학생, 공무원, 경찰, 사병들 반쪽이 된 조국의 구성원들이 처해있는 현실은 차마 양심을 지닌 인간은 현안케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1988.5.15 조성만의 유서)

수많은 양심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어갔다. 전태일 열사로부터 조성만 열사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아니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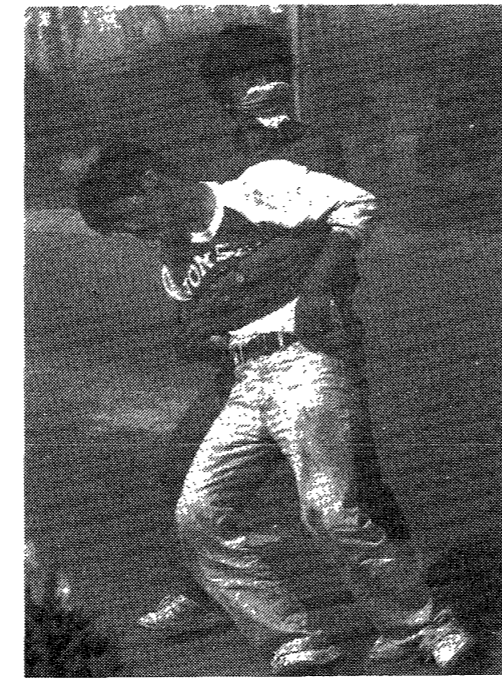
더 못한 경제사정을 가진 나라의 48시간노동보다도 더 열악한 것"(1987.국제노동기구 연감)임에도 불구하고 "80~88년 기간 실질임금은 70% 상승된 반면 노동생산성은 이보다 훨씬 높은 175% 향상"(한국사회의 현대적 노동현실)이 되었으며 "1985년 이후 삼성, 롯데 등 주요 대기업이 총부자액의 80% 이상을 부동산 매입에 쏟아부었고 88년 30대 대기업의 순이익 1조 3천억 중 30% 이상을 부동산매입을 통해 받고 있는 것"(한겨레신문 89.10.8)이 한국의 경제현실이다. 또 "미국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한국에 있는 모든 형태의 재산에 대한 취득·소유권에 대해 미국정부가 요구하면 한국정부는 아무때나 인정한다"(한겨레신문 90.2.2)라는 굴욕적인 판례 또한 한국의 현실이다.

6·29선언을 통해 '언론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는 속물적이고 대 학신문기자를 대거 구속하는가 하면, 북한취재를 계획했다고 하여 일간지의 논설위원을 구속하는 모순이 그런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주당노동시간, 가장 높은 산업재해율, 열악한 노동환경이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의 죽음에 있고 택시노동자 박영진의 죽음에 살아있다.

유래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강제된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의 땅이 있는 것이다.

양심적이지 못한 사회, 경제적이지 못한 사회, 불평등한 사회를 조급이나 마 고치려한 수많은 사람을 모순에 찬 현실이 잇어가고 있는 것이다.



세 계 에 서 가장 긴 노동 시간, 가장 높은 산업재해율, 그리고 분단을 강요하는 외세. 지금의 사회 현실은 이 땅에 밝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이들을 이들을 편에서 싸우게끔 만든다.

앞서 말했듯 대학에는 수많은 행사와 모임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학생회가 있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주적인 대동조적으로 학생복지, 교과과정 개편 등의 학사행정, 학회 등 학내 학문연구, 정치적 제언활동을 위한 활동들을 해나간다. 따라서 학생회의 주인으로서 여러 활동을 한다는 것은 앞서 말한 모순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첫발임을 의미한다.

물론 학생회선거의 수많은 동아리들이 있다. 우리학교의 경우 연극을 하는 극예술연구회, 문학과 사회를 공부하며 창작활동을 하는 동국문학회, 농어촌 현실을 연구하고 농어민들과 연대활동을 하는 농어촌연구회, 역사연구를 통해 현재 사회현실의 본질을 탐구·실천하는 사우회, 민족사연구회 등 수많은 동아리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동아리에서는 보수적이고 미국식 서구학문에 의해 왜곡된 대학교육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다양한 특색있는, 공동학습, 실천들을 통해 자주적 지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세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볼 수 있게 하는 과학적 자세를 기를 수 있게 해준다.

셋째, 학생회주관으로 이루어지는 농촌활동이 있다. 농촌활동은 방학기간을 이용해 짧은 기간이나 다 농촌에 내려가 농민들과 함께 일을 하고 땅을 흘리며 대학인으로서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민중성을 추구하는 대학문화의 의미 있는 내용중의 하나이다.

농촌활동을 통해 노동과 땅의 진정한 의미를 맛보고 뜨거운 여름 햇볕 속에서 밀리서 스쳐지나가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주인됨의 자세를 가지려면 고등 학교 시절 주입받았던 많은 것을 스스로의 책임감으로 다시 평가하고 버릴 것과 기질들을 기르야 한다. 그리고 소신 일하나라도 실천을 통해 알아가고자 하는 치열한 삶의 자세 또한 농촌에서는 안일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앞서 말한 사회적 현실과 대학생들은 떨어질 때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등록금인상을 들 수 있다. 등록금은 계속 올라가는데 교육의 질은 나이지는 것이 없다. 이것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학교경영을 소유한 사람들이 학원을 이윤추구의 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그만 부분까지도 대학은 사회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동아리 바라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보 다 민중적으로 살아 가자

학생회, 동아리 등 여러 공간은 누가 주인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 싸워 얻은 것이다.

우리의 선배들은 사회현실과 동떨어지게 먹고 마시고 즐기며 적당히 공부하는 잘못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항상 대다수 민중의 편에서 서서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여 싸워 왔다.

대학은 앞서 말한 여러 활동공간을 통해 모순으로 가득찬 사회현실을 변화시켜갈 수 있는 자주적인 인간을 길러 내는 곳이다.

흔히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라고 말한다. 새내기들이 조국을 새로 세울 수 있는 청년이 되려면 조국의 현실을 직면해야 하고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대학생활을 주입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주인됨의 자세를 가지려면 고등 학교 시절 주입받았던 많은 것을 스스로의 책임감으로 다시 평가하고 버릴 것과 기질들을 기르야 한다. 그리고 소신 일하나라도 실천을 통해 알아가고자 하는 치열한 삶의 자세 또한 농촌에서는 안일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제12대 총장 취임사

교수님 여러분,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님 여러분, 동창회장님과 동문, 학생, 그리고 모든 동국가족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주신 내외의 귀빈 여러분.

오늘 본인이 동국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은 여러분의 성원과 부처님의 가호에 의한 것임을 생각할 때, 본인은 기쁨과 영광에 앞서 무거운 책무와 책임감을 통렬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에 넘치는 호의와 배려로 본인이 총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신 동국가족 여러분에게 가슴으로부터 우리나라는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세기에 걸쳐 다사다난했던 국내외의 열악한 상황속에서 오늘의 동국대학교가 불교정신에 입각하여 민족사학으로 울곧게 자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신 전임 총장님들께도 머리숙여 그 노고를 치하하고자 합니다.

다 아시아시퍼 동국대학교는 부처님의 願力에 의해 佛國土의 이상을 교육으로 펼쳐 利他的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도량입니다.

무엇보다 본인은 동국대학교가 이같은 건학이념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체제와 교육내용을 검토하여 호드러진 것은 바로정신, 일말된 것은 제위치로 환원시켜 명실상부한 불교 교육의 심장부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과 애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동국대학교 현재의 위치가 한국의 대학속에서 어디에 있으며 세계의 대학들 속에서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를 무엇보다 먼저 인정하고 냉철하게 파악하여 지지부진한 것이 있으면 그 원인을 제거하고 現代化된 대학, 세계속의 대학, 名門으로서의 동국대학교를 걸맞은 중흥의 노력을 殺身成仁의 의지로 구체화 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날의 티끌같은 질질뭇을 침소봉대하는 百家爭鳴의 소수적 입장에서 과감히 벗어난 대담의 태도를 본뜬 반석위에 놓아야 하는 대승적 사명감에 입각한 동국가족 모두의 人和와 團結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작은 것에 얽매는 小人的 차원을 평정하여 '나' 아닌 '우리' 모두를 헤아리는 해량과 보살정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절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좋은 人才들을 동국의 품안으로 감싸안아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여 훌륭한 동량으로 양성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부하된 역사적, 교육적 사명임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 믿습니다.

본인을 여러 기회를 통해 이러한 대원력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학교운영상의 골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 장·중·단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발전 을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학교, 재단, 종단, 동문이 모두 참여하는 총화운영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교수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기교적인 행정 체제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셋째, 재정안정 및 그 확보를 위해 국고지원의 확충을 이끌어내고, 재단과 종단은 물론 기업인, 동문의 건물 및 기자재 기증을 유도하여 건전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일이 火急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서울과 경주 양 캠퍼스간의 협력체제를 확고히 하여 중앙과 지방 캠퍼스 간의 위화감을 일소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교수들의 연구환경 재정비, 교수·교직원 의 합리적 처우개선 및 연구활동에 대한 특별지원 등을 통한 교육 환경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체제의 민주적 확립은 학교발전의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 민주행정이란 ① 공개행정과 봉사행정 체제의 확립 ② 교수, 교직원, 학생이란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고 ③ 교수, 교직원의 신분 보장 및 공정한 인사와, ④ 포상제도의 엄정성과 활성화 ⑤ 장학금의 적정화 등이 될 것입니다.

이것들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한 학교운영에 동 국가족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거듭 당부합니다.

본인은 총장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고만은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책임과 봉사, 자신을 총무로써 학교발전의 祭壇위에 내던지며 歷史와 民族 人類애에 偉대한 공헌을 하게 하는 어렵고 비찬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을 이 자리에 앉힌 것은, 과거의 동국대학교를 현재의 동국대학교의 장을 통해 비평적으로 省察하고, 미래의 동국대학교를 세계적으로 도약하게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 누리의 그늘진 곳까지 두루 비추게 하는데 앞장서라는 뜻으로 헤아립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21세기를 바라보고, 수백년의 마지막 夢靨에서 일어나십시오.

총장으로서 본인에게 부여된 역사적 책무는 동 국가족 여러분의 협조와 지도 권달이 없이는 그 성취가 불가능할 것임을 명약합니다.

동국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人和와 團結을 통해 본인을 이끌어 주시고 편달하십시오.

여러분과 본인이 끝까지 손을 맞잡고 새로운 동국대학교의 건설을 위해 땅 울려 용맹 전진하고 그 초석을 다질 때, 동국대학교의 밝은 미래와 도약, 그리고 중흥은 부처님의 가호아래 기필코 우리의 것이 되고 말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때 우리는 역사와 민족, 인류의 양심 앞에 떳떳이 서게 되는 동국의 참말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호가 자 리를 함께 하기를 懇願하며 이만 취임사에 거듭합니다.

1991년 3월 9일

총장 閔 丙 天 합장

으로 정하여 열악한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이 열악한 상태로 보 전되는 것을 막기위한 노동자의 보호조항으로 삽입된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가 유효기간 만료 시기를 거론하며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른바 '자동연장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2년간의 회기유효기간과 그 이후 3개월을 경과한 상태는 무협약상태가 되나 기존의 단체협약상 유효기간 만료시기를 전후하여 쌍방 서도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굳이 이러한 입법취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단체협약이 노사간의 자율적인 규범이라고 할 때 이를 정부나 경단협에서 거부부터하는 것은 노사간의 자율적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성범(서노협 선전부장)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2년 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 서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다"로 되어있다. 또 3항에는 "단체협약 약정기간 만료시기를 전후하여 쌍방 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 한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 을 갖는다"고 되어있다.

정부와 자본가가 이러한 법해석 과는 달리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사회·경제적 사정이 급변하는 상황 에서 자본가가 유효기간을 정기간

'91 단체협약안 쟁점 3. 단체협약 유효기간 문제

노동운동단체협약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문제이다.

단체협약의 개입기도는 어느 사 단체에서나 일어나고 있지만 91년 들어서는 한결 더 나아가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의 교묘 기부 또는 지연시키된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기존 조약을 계속 하거나 또는 부정한 조약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동, 웨스트엔지니어링 조, 인천의 기록병노동, 한국에 서 일어난 이러한 유효기간과 관련 된 문제는 총자본이 체계적이고 조 직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과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개량, 저 지시키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정부와 자본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법조항의 잘못된 해석에 근거 하고 있다.

문제가 된 법조항은 노동조합법 35조항, 2항으로 '임금을 제외한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 한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 을 갖는다"고 되어있다.

정부와 자본가가 이러한 법해석 과는 달리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사회·경제적 사정이 급변하는 상황 에서 자본가가 유효기간을 정기간

만료후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새롭게 떠오른 노조탄압책동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 한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 을 갖는다"고 되어있다.

정부와 자본가가 이러한 법해석 과는 달리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사회·경제적 사정이 급변하는 상황 에서 자본가가 유효기간을 정기간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 한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 을 갖는다"고 되어있다.

정부와 자본가가 이러한 법해석 과는 달리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사회·경제적 사정이 급변하는 상황 에서 자본가가 유효기간을 정기간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 한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 을 갖는다"고 되어있다.

정부와 자본가가 이러한 법해석 과는 달리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사회·경제적 사정이 급변하는 상황 에서 자본가가 유효기간을 정기간

어떤 사회현실인가

그러면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현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알아보자.

"한국의 노동시간은 78년에 주 53시간 83년에 54.4시간 86년에 54.7시간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일본·스페인과 86년 기준으로 40시간인 미국의 노동시간에 비교해 엄청난 것이다. 심지어 싱가포르, 페루 등 한국과 비슷하거나

대학생이 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대학은 사회현실과 떨어져 하늘을 보고 걸을수 없는 정도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강제된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에 있고 택시노동자 박영진의 죽음에 살아있다.

유래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강제된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에 있고 택시노동자 박영진의 죽음에 살아있다.

유래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강제된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에 있고 택시노동자 박영진의 죽음에 살아있다.

공 고

자연계학과 전과시험 실시

산업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공급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전과를 실시함.

1. 모집학과 및 인원

전자공학(4명), 전자계산학과(12명), 전기 공학과(4명), 화학공학과(4명), 산업공학과(10명)

2. 모집학년: 2학년

3. 지원자격

가. '91년도 3월12일 현재 본교 자연계학과 2학년 재학생으로서

나. 1학년 학기당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취득학점이 36학점 이상이며

다. 1학년 평점평균이 B 이상인자

4. 제출서류

가. 전과원서 1매(소정양식)

나.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다. 사진 3×4cm (반명함 1장)(1개월 이내 촬영한 것)

라. 전형료 15,000원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기간: '91. 3.12(화)~3.14(목) 17:00까지

나. 장소: 소속대학 교학과

6. 전형일시: '91. 3.16(토) 09:00-

7. 전형방법: 영어, 일반수학, 면접, 서류전형

8. 전형장소: C201, C204(본관5계)

조기졸업 신청업무 실시

'91학년도 조기졸업 신청업무 실시

1. 신청서 접수기간: '91. 3. 11(월)~3. 15(금)

2. 신청방법 및 장소: 조기졸업신청서(소정양식)와 성적증명서를 소속대학 교학과에 제출한다.

3. 신청자격: 가. 1981학년도 이후 입학자로 초과학점을 취득하고 7학기 등록을 끝낸 자.

나. 4학년 1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이고 7학기 평점평균이 4.0 이상 취득이 가능한 자.

복수전공 이수지원서 접수

'91학년도 전기졸업대상자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하는 학생의 지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함.

1. 지원서 접수기간: '91. 3. 11(월)~3. 15(금)

2. 접수처: 학과과

3. 지원자격

가. '81학년도 이후 입학자

나. '92년 2월 졸업대상자

다. 전공과정 이수시 매학기 취득학점이 17학점 이상이고 전학 년 평균 평점이 3.0 이상인 자(4학년 2학기는 제외함)

4. 제출서류: 가. 복수전공이수지원서 1부

나. 성적증명서 1통.

부전공 이수신청서 접수

'91학년도 부전공 이수신청서 접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

1. 신청서 접수기간: '91. 3. 11(월)~3. 15(금)

2. 신청방법 및 장소: 부전공 이수신청서 부전공 학과장의 날 인을 받아 소속대학 교학과에 제출한다.

3. 신청자격: 현재 2학년 재학생 및 6학기 2학년 복학자.

교 무 처 장

자연계학과 전과시험 실시

산업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공급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전과를 실시함.

1. 모집학과 및 인원

전자공학(4명), 전자계산학과(12명), 전기 공학과(4명), 화학공학과(4명), 산업공학과(10명)

2. 모집학년: 2학년

3. 지원자격

가. '91년도 3월12일 현재 본교 자연계학과 2학년 재학생으로서

나. 1학년 학기당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취득학점이 36학점 이상이며

다. 1학년 평점평균이 B 이상인자

4. 제출서류

가. 전과원서 1매(소정양식)

나.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다. 사진 3×4cm (반명함 1장)(1개월 이내 촬영한 것)

라. 전형료 15,000원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기간: '91. 3.12(화)~3.14(목) 17:00까지

나. 장소: 소속대학 교학과

6. 전형일시: '91. 3.16(토) 09:00-

7. 전형방법: 영어, 일반수학, 면접, 서류전형

8. 전형장소: C201, C204(본관5계)

납입금 납부 안내

1991학년도 제1기 학부 재학생 납입금을 아래와 같이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1. 납부기간: 1991년 3월 8일 ~ 3월 16일

2. 납부처

구분	납부처	대상 학생
캠 퍼 스	조흥은행 및 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	전산처리된 고지서를 소지한 학생(전산으로 검색 처리된 고지서 포함)
	조흥은행 동국대 출장소 및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1) 장학금 수혜자로서 장학금 지급의뢰서를 소지한 학생(납입금 고지서와 장학금 지급 의뢰서를 함께 납부처에 제출)
경주 캠퍼스	경주캠퍼스 경리과	2) 복학생 및 학점등록자

3. 기타

1) 납입금 고지서는 재발행이 불가능하므로 분실·오손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라며, 납부 기간이 경과되면 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기간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학교 경리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1991년 3월 일

총 무 처 장

성 명 서

황필호 교수의 '재임용 제외' 소식을 접하며

작년 12월 20일에 개최된 제106회 이사회는 본교 철학과에서 부교수로 재직중인 황필호교수를 재임용에서 제외시켰다. 사유는 "국적변경"이라고만 적혀 있다.

우선 우리는 한 울타리 안에서 고락을 같이하던 우리의 동료교수 한 분이 급작스럽게 재임용에서 제외됨으로써 더 이상 우리와 함께 동료로서 지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 충격과 슬픔을 감출 수가 없다. 더우기 사전 예고도 아무런 부연 설명도 없이 단지 국적 변경이라는 네 글자만 밝혀져 있는 재임용을 대하면서 우리는 그저 아연할 따름이다. 한 교수의 생명줄인 교직을 박탈하는 마당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사전통보"는 고사하고, 그 사유가 어찌 이토록 간단하고 애매모호할 수 있던 말인가!

황필호교수는 그간 지내고 있던 미국국적을 자 원하여 포기하고 작년 9월 15일자로 한국국적을 회복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국적변경이 왜 재임용 제외사유가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하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교수가 직위에 불안감을 갖게 하는 어떠한 부당한 교원철폐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1. 재단사회는 황필호교수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밝혀라.

2. 교수회는 교원을 비롯한 제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교수총회를 빠른 시일안에 소집하라.

1991년 3월 13일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평교수협의회

국민주 모금 통한 '민중의소리' 대변

현 장 탐 방

오는 6월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주 모금운동이 16년째로 돌입한다.

우리신문은 '한겨레 신문'과 제휴로 '국민주 모금운동'이 이어 발행되는 국민주신문이며 5월중에는 호남지역을 배포권으로 하는 '빛고을 신문'이 창간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2일 경북대 대강당에서 열린 창간 발기인 대회에는 학계, 문화계, 종교계 등 60여명의 창간추진위원을 비롯한 1천여명의 발기인과 새신문 창간을 열망하는 시민, 농어민, 학생들이 함께 모여 창간준비에 참여했으며 지난 11일부터는 대내·군단위로 지역 추진위원들과 신문사 홍보담당자들이 함께 지역설명회를 시작하여 시군민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우리신문'의 창간배경은 지난 90년 가을 그들의 파행적 경영과 부당 노동행위에 맞선 노동조합들의 1백31일에 걸친 장기투쟁과 30여일간의 출근투쟁을 했던 영남일보 파업사태에서 경영자측과 노동조합과의 단절현상이 결렬됨으로써 지난 1월 19일 70여명의 노동자들이 집단 사표를 내고, 그 노동조합이 회사측으로부터 받은 퇴직금으로 바른신문을 만들겠다는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며, 여기에 뜻을 함께하는 대

대구·경북지역신문 창간 준비하는 '우리신문'

구·경북지역의 뜻있는 사람들도 계속 동참하고 있다. '우리신문' 창간준비위원회는 강대인(공동위원장·계명대교수)씨, 김은집(공동위원장·연호사)씨, 신광(공동위원장·영남일보 편집부국장)씨 등 3명이며 대구·경북지역 대표인사와 원로로 이루어진 63명의 추진위원과 노조원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다. '우리신문'은 1차로 사·도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입장이며, 이와함께 의견이 없는 '무의결권' 주식을 함께 발행한다. 또한, 중소기업인·대학생·농어민들을 대상으로 전교조, 각 단체 노조, 전농등과 유기적 관계를 맺을 예정이며 현재 준비중이다. '우리신문'이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한 지역신문으로 창간되어 자리매김을 하는데

지역신문이기에 읽기 쉽고 손에 가까이 하기 쉬운 편집방향으로 생활정보에 중점을 두고 20~40대 독자층을 겨냥해 직장인·소상공인·중소기업인·대학생·농어민들을 대상으로 전교조, 각 단체 노조, 전농등과 유기적 관계를 맺을 예정이며 현재 준비중이다. '우리신문'이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한 지역신문으로 창간되어 자리매김을 하는데

은 대구매일신문, 경북일보 등 많은 신문이 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신문의 운영주체가 종교단체나 대재벌, 특정인 소유의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 아래 신문의 기사내용등의 편집방향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 또한, 대구의 지역특색이 보수적, 우익적 색채가 매우 짙어 자본소유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이들 신문사들은 모두 노조가 탄압당했으며 1사는 의욕을 상실했고, 3개 신문사노조는



◇창간 준비가 바쁜 가운데 국민주 접수를 받고 있다.

은 아주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우리신문'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지역 언론자들이 그들의 지역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역신문은 당연히 지역소식을 중심으로 발행되어야 원칙이지만 대부분이 중앙지를 모방하고 있다. 일례로, 경북권이 시작될 때 대구지역신문과 중앙지의 1면 머릿기사 제목, 사진들이 대부분 동일했다.

또한 지역·학연에 얽매인 축소·과장등의 왜곡보도를 지양하고, 그 지역신문의 독자이며 주인인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정보에 관한 지면현황, 주

민을 대변하는 기사가 주를 이루어야 할 것이 또다른 과제이다.

앞으로 지자체선거 이후에는 탈중앙화가 이루어져 새로운 지방화 시대가 이루어짐으로 지역신문의 위치는 더욱 강화된다.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아 기존신문들은 자본소유주의 이익을 옹호하는 보도에 얽매어 있으며 현실적인 흥미기사 위주, 특정계층, 인사들의 경제진출 등을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지역신문은 대중성 때문에 여론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자체를 통한 인간적인 민중의 삶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진정한 올바른 위상과 과제자본으로 구성된 지역신문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우리신문'은 이러한 지역신문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태어난 신문이기에 민중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그러나 국민주로 시작된 한겨레신문이 창간기념일을 거듭할수록 국민대중의 일간지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지만, 대기업 광고를 전면에 실는 모습들은 지양되어야 할 모습이며 '우리신문'에 기대를 건다.

(현)

주민 직접참여로 편집권 확보가능

"민주단체 발맞춰 지역운동 활성화 시킬터"

주 60만주(30억원)를 목표로 지난달 21일부터 주식공모를 시작했으며, 4월까지 주식공모를 마칠려고 한다.

국민주는 자본구조가 어떤 특정한 한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독자, 국민 스스로가 주주기되어 신문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창간준비위원회 한 관계자는 "국민주만이 대체되거나 권력에 장악되어 오일되고 왜곡된 경영과 보도를 독자 스스로 지지하고 신문의 내용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말한다.

1차모금액 30억원은 최신시설 도입에 소요되는 인력을 최소화하고 시도민이 원하는 정보체제보도에 최대한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지역신문에 알맞는 경제정보를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매일 16면씩 부대 지면을 제작 발행할 창간준비비율과 운영자금 등으로 쓰인다.

40:60 정도의 비율로 책정함으로써 편집권의 완전한 독립과 신문경영의 안전성을 고려하고 있다.

사무국장 이석대(영남일보 기자)씨는 "한 특정한 1백주를 사는 것보다 사·도민 한사람 한사람이 1주를 구입하기 원한다"며 "지역 시도민이 키우고 가꾸어 나가야 할 신문이다"라고 말한다.

1차모금액 30억원은 최신시설 도입에 소요되는 인력을 최소화하고 시도민이 원하는 정보체제보도에 최대한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지역신문에 알맞는 경제정보를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매일 16면씩 부대 지면을 제작 발행할 창간준비비율과 운영자금 등으로 쓰인다.

있어 앞으로 제시되는 문제점과 상황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배포되고 있는 지역신문들은 1도에 1사주의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 원칙이 무너지고 있으며, 특히, 대구지역

와해된 상태이다.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기존 언론사들이 특정집단과 권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언론을 실현하고 기자회견을 정화시키기 위한 장치를 마련 한다는 것



물가가 우리 손을 벗어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경실련) 발표자료를 보면 올 1월 소비자물가상승이 10년만에 최고수준인 2.1%를 기록했다고 한다. 10년만에 최고라는 명에(?)에 대해 정부당국자는 계절적요인과 공공요금인상에 의한 일시적현상에 불과하다고 강변한다. 과연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인플레이션상은 정부와민간대표 "일시적현상인가?" 우리의 어머니들이 1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가지고 시장에 가봐도 시장바구니가 차지 않는다는 푸념을 한지도 이미 꽤 오래되었고, 우리들도 학교 주변에서 흔히 느끼는 일이다. 장당 20원하던 복사비가 30원으로 50%나 정중되었고, 학교 앞 카페에서 차를 마시려고 해도 차 값이 7~8백원에서 천원으로 올랐다. 또한 3월을 시업생원영회에 개강과다 해서 술집을 찾으면 예전에 비해 2~5만원 정도 올라 부담이 커졌고, 또한 반찬값도 너무 많이 올랐다고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4%라고 발표했다. 이는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물가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물가상승에

이해해 풍류아저씨는 "쌀 한 가마니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르고, 양파값도 자꾸만 3천원에서 9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가격을 올려도 예전에 비해 남는 것이 없어요"라며 실제로 동국대 학교가 시내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오르는 집세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을 한다. 더군다나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 타학교에 비해 월등히 많고, 그에 비해 학교의 복지시설이나 교사사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한 우리 동대생들이 겪는 물가인상에 의한 생활고는 심하다. 하수방을 혼자 쓸 경우

23~25만원 정도 들고, 들이 써도 14~16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5만원 정도 올라 부담이 커졌고, 또한 반찬값도 너무 많이 올랐다고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4%라고 발표했다. 이는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물가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물가상승에

재벌과 정부 '공범'

는 물가상승의 주원인이 임금인상이라고 하나, 경실련자료에 의하면 지난 2년동안 전체 값 상승액은 430만원인데 비해, 2년반동안 임금상승액의 합계는 216만원이어서, 도시세입자의 경우 오히려 254만원의 빚을 지게된다는 그런 주장은 너무 없는 직관적합리성이라고 주장한다. 임금이 아무리 인상되어도 물가인상이 그에 상응하기 때문에 실질임금은 유지되는 것이다. 빚을 지게 만드는 데 이렇듯의 반민중성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다.



3월26일은 기초의회의원 선거일이다. 수서비리로 공지에 물린 노정권은 국민들의 시선을 끌기 위하여 '지자체'를 하려고 하고 있다. 노정권은 출범당시 약속했던 금융실명제와 부동산투기근절정책을 시행하지 않아 통화발달로 인한 물가인상을 수수방관해놓고, 이제 도시서 '투파리 민주주의'를 정권유지 수단으로 이용한 것. 금융계 한 관계자는 이번 지자체 선거때 2조원의 돈이 뿌려질 것이라고 얘기한다. 통화발달은 그대로 물가불안·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이제 지자체선거가 끝나거나면 또 얼마나 물가가 올라있을 것인가. (承)

지난해 체감물가 인상을 25% 이상 임금인상, 집세상승을 못따라가

충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가격등이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어있다"며 정부발표 물가지수의 허위성을 말한다. 정부당국자들은 '한자리수' 물가발표에만 집착하여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인상률의 원인을 알아내어, 대책을 세우고 실행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6공화국 물가인상의 근원을

따져보면 지난 87년 대통령선거 당시 노태우후보가 뿌린 거액의 선거자금으로 물가불안의 주요인은 잉태되었고, 수서 사건에서 보듯이 그동안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 특혜등을 시행해왔던 것이다. 또한 6공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지 못한채 도시빈민들이 자살까지 하게 하는 살인적인 집세상승을 부채질 해왔다. 이에 반해 6공에서

물가가 우리 손을 벗어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경실련) 발표자료를 보면 올 1월 소비자물가상승이 10년만에 최고수준인 2.1%를 기록했다고 한다. 10년만에 최고라는 명에(?)에 대해 정부당국자는 계절적요인과 공공요금인상에 의한 일시적현상에 불과하다고 강변한다. 과연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인플레이션상은 정부와민간대표 "일시적현상인가?" 우리의 어머니들이 1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가지고 시장에 가봐도 시장바구니가 차지 않는다는 푸념을 한지도 이미 꽤 오래되었고, 우리들도 학교 주변에서 흔히 느끼는 일이다. 장당 20원하던 복사비가 30원으로 50%나 정중되었고, 학교 앞 카페에서 차를 마시려고 해도 차 값이 7~8백원에서 천원으로 올랐다. 또한 3월을 시업생원영회에 개강과다 해서 술집을 찾으면 예전에 비해 2~5만원 정도 올라 부담이 커졌고, 또한 반찬값도 너무 많이 올랐다고도 말한다.

명의로

"오늘 본인이 12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은 여러분의 성원과 부처님의 가호에 의한 것임을 생각할때 본인이 기쁨과 영광에 앞서 책무와 책임감을 통절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일 오전 11시 제12대 총장 민병천교수의 총장 취임교섭식이 오인갑이사장, 정대통령의장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각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제12대 총장선거를 위한 경주캠퍼스 공청회대 교수회 선거에서 2순위를 할 경우 총장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던 호언장담은 어느덧 잊혀져가는 채, 이날 교섭식에서 민총장의 더 큰 대의만이 주위를 떠돌았다. "첫째, 장·중·단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학교발전

계획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 할것... 둘째, 학교·재단·중단·등문이 총화운영체 구성... 학교발전을 위한 글은 절의를 다지며 민총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의 포부를 밝

총장과 명분



했다. 지난 11일 민총장은 분사와 인터뷰를 통해 2순위로 선정돼 총장거부시사를 반복한 것에 대해 "학내의 상황 전개가 교수회에서 추천하지 않은 교수가 낙점될 가능성이 었보였고 총장선임을 계속 사양하던 학교가 더 혼란할 것을 우려, 응낙했다"고

학교호환을 이유로 들었다. 89년 부정입학사건 이후이지만 총장선거의 증정선거를 재출마를 놓고 '도덕적 명분'에 있어 학내 각 주체들의 큰 반발을 산 예를 기억한다.

"신임총장에 대한 도덕성을 담보로 하는 비탄의 화살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진중한 책임을 묻는 것임을 밝혀둔다"고 지난 12일 취임노조의 성명서에서 밝혔듯이 민총장이 총장선거에 했던 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때 2순위로 서의 '도덕적 명분'을 채울것이라는 학내주체들의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다.

"경주 부총장은 기필코 교수의 직선으로 하겠다"고 했던 총장선거때 다짐과 달리 지난 6일 경주캠퍼스입학식 후 밝힌 "경주 부총장은 재단에서 선임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민총장이 2순위로 서의 '도덕적 명분'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냐... (남철우 기자)

교육부 정책: '듣기평가' 도입 '병어리영어' 탈피 선언!

듣기 수 없으면 말할 수도 없다



20년 강의의 결정체 국내 최초 Listening 교재 탄생!

TAPE 33개 교본 11권 (컬러판 6권)

○ 김철호영어강좌 내용과 구성

단계	교재명	내용	교본	TAPE
I	Lastening Drilling	듣기 기본능력배양 발음정리 요령	1	2
II	Lastening Focus	문장구조 핵심 영어와 우리말의 대응능력 분석	1	10
III	Whaddaya Say	미국인의 발음이 안들리는 안일분석	1	5
IV	AFK 듣기요령	AFK인상을 위한 훈련매체	1	6
V	Daily English	일상생활 영어의 구체화	1	4
VI	번화	미국문화 6년 학습일 권역안과 코담보	6	6

영어회화의 지름길은 김철호영어강좌 3-Step Program으로

- 미국인의 발음식별능력과 청취력에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 대화의 뜻과 이해를 인연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배우기 쉽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 음성학적으로 연구분석된 순서로 과학적이고 획기적인 발음교정이 됩니다.
- 생활화 문법 위주에서 과감하게 탈피한 생동감과 박진감이 있는 교재입니다.
- 첫 TAPE 들는 즉시 학습효과가 나타나며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 영어의 감을 느끼며 미국인과 똑같은 속도로 말할 수 있는 실력이 배양됩니다.
- 영어회화에 짜인 재미를 느끼며 AFK가 저절로 들리며 이해가 쉽게 됩니다.
- TAPE와 교본을 분리해서 학습할 수 있는 것점이 있어 매우 편리한 교재입니다.
- 저자는 20년간 영어 명문학원에서의 강의와 유대학 TOEFL.C강의와 대기업 사원연수 교육을 통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한 특징이 있는 순수 창작교재입니다.
- 외국인이 만든 교재보다 생동감이 더하며 짜릿한 실감을 느끼며 영어회화에 나도모르게 재미를 느껴집니다.

이런 분들은 즉시 전화하십시오.

- 현재 학원에서 수강중이나 영어에 감을 느끼지 못하여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
- 많은 공하는 들 Listening이 안되는 분
- 현재 다른 TAPE로 공부중인데도 진전없이 강의를 경험해 세련된 스피킹을 빨리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 TOEFL.C를 학습하는 대학생이나 TOEFL.C의 고득점을 노리는 분
- 해외여행이나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분
- 영어듣거나 발음 교정지도 고민하는 선생님들
- 영어발음이 나빠서 고민하시는 분
- 기초가 없어 영어회화 학습을 포기한 분

※외국인의 번역과 교재 TAPE나 학원 수강으로 도 영어회화 실용본문은 꼭 참석 바랍니다.

김철호영어강좌 저자소개

- 1970년 국제외교부 AFK강의를 개설했습니다.
- 각종 잡지에서 10년 이상 실용영어로 활동했습니다.
- 현재 한국문화언론 대표이사 역임
- 유석사 출판부역사사 TOEFL.C명강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사외교과대학 편에서 1990년 4월 26일 공보부장관상 수상

仁成言語文化院

주소: 서울 구로구 구로5동 111-12호 인성B/D
 전화: 514-8626 부산: 44-8358-9
 대구: 953-2370 대전: 625-0916

호 주 유 학 전 시 회

30 학교로 구성된 호주교육사절단이 내한하여 학교별 설명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장 소: 조선훈원 그랜드 볼룸(1층)
 일 시: 3월 25일~27일 오후 1시~8시

※ 학교별 세미나 시간표는 전시장에서 배부됩니다.

호주교육에 관한 모든 임무는 주한 호주 대사관에서 호주교육원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주 최: 호주교육원
 서울 중구 장교동 1번지 장교빌딩 1202-1호 (보행장애환자전 1층)
 ☎ 776-7246/7, 775-7513

마침고리가 민중소설

더 좋은 세상을 기다리는 낮은 땅의 사람들

450쪽 4,300원

“동지여, 당신이 지구상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시오. 당신이 작은 일을 함으로써 당신은 진정한 새 세계를 창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지만 끝까지 기다리신다

390쪽 4,000원

틀스토이 민중소설

서진중고자동차매매 (차량사고팔고) 사무실 58099-17550 상무 이광춘

전화 278-4470-278-9309 FAX 278-4470

미군은 군살빼고 한국군은 늘어나고

전시주류국협정의 배경과 그 본질

미-아프리카 전쟁이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을 맺고, 미국이 '1국 시대'의 유일한 맹주(盟主)로 군림하는 이른바 '팍스아메리카나'의 시대가 서서히 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들이 그렇게 않아도 탄탄한 밀원관계를 자랑해온 한미군사관계에 한층 밀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그 핵심적인 사항의 하나로 떠오르는 것이 88년 이후 미국이 연례안보회의(SCM) 때 미국이 강력히 체결을 요구하는 있는 전시 주류국 협정문이다.

최소 비용으로 보다 큰 군대를

이 협정이 한미군사관계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그 비중을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최근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다시피 이번 전쟁은 앞으로 미국의 중심적인 세계전략으로서 이 이른바 '중강도 전쟁' 전략을 떠올렸다. 이 전략은 제3세계, 즉 '남(南)'으로 부르는 위험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앞으로의 세계평화를 유지하는데서 중심과제라고 강조한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가장 적은 소련이 아니라, 이라크나 '북한'과 같은 제3세계의 국지적 강국이 된다. 즉 이 전략에 따르면 '세계평화'의 수호라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군사동맹체제의 틀을 유지하게 되고, 제3세계에 대한 미국의 개입정책은 '경찰국가'로서의 정당한 임무 수행으로 미화된다. 여기서 미국이 노리는 의도는 분명하다. 이 전략을 통해 앞으로의 탈냉전시대에 '유일한 1등국'이자 '세계의 지배국가'로 남아, 자신을 중심으로 현재의 군사동맹체제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세계를 호령한다는 것이다.

이런 구상 아래 최근들어 그 중요성이 배가된 것이 유사시 분쟁지역으로 신속히 이동·배치할 수 있는 기동전투병력의 증강, 즉 '신속배치군' 문제다. 지금까지 보류부대 등을 포함한 방대한 규모의 재미군의 형태보다는,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면서도 유지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기동전투병력의 강화가 앞서의 전략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사항으로 떠오른 것이다. 또 앞으로 미국의 주된 전쟁대상이 소규모 혹은 중간 규모의 우발적이고 국지적인 지역 분쟁임을 감안할 때, 분쟁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해 전투에 투입되는 신속배치군의 의미는 가히 '상승기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국 이같은 미국의 세계전략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다 큰 규모의 군대의 유지'라는 말로 요약된다. 현재의 핵과 해공군력을 중심으로한 군사전략과 동맹체제는 그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효율성 제고의 차원에서 재래식 무기과 같은 미군의 비중을 낮추고, SDI와 같은 첨단무기와 앞서의 신속배치군과 같은 계획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는 다시말해 앞으로의 탈냉전시

태에도 미국의 군사전략은 이전의 냉전적 준비확장노선의 틀 안에서 운용될 것임을 말한다.

'둔부담' 대폭 늘일 전시주류국협정

아다시피 이 협정은 한반도 유사시 투입되는 미군 증원군의 군수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이 협정은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략적 경우 한국은 간접지원 지위로, 나중엔 미국의 지원 부대가 도착할 경우 한국은 직접 지원 지위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전시에 군수지원부대를 동반하지 않고 전투부대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증원군을 보내고, 한국은 이 부대의 전투에 필요한 유류, 탄약, 구급식 등 군수지원을 해줌으로써 미군 증원전력의 조기전투화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 여기서도 보



미국의 군비확장노선 유지 의도 북한을 '적'... 남북관계 부정적 영향

는 정도 알 수 있듯이 이 협정에는 앞서의 신속배치군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략을 짚는다는 미국의 구상이 맞물려 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협정이 세계 각국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미 미국은 나토체제와 이 협정을 체결, 시행하고 있고 일본 등파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나토의 경험에서 이 협정은 일방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후방연락선(LOC)·공중군사기지(COB)·지원부대 등이다. 즉 전시에 미군 증원군에 병참지원을 하기 위한 평시의 물자비축과 시설관리 및 인력동원태세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에 따르면 평시의 각종 합동군사연습 비용도 주권국이 부담하게 된다.

중요성 배가된 틱스피리트훈련

이 협정의 이면에는 이른바 '이중지향성'이라는 미국의 속셈이 감춰져 있다. 이는 말 그대로 미 본토와 해외에 이중으로 기지를 확보

해 두는 방식으로, 해외지향에는 사령부 기구와 실전부대의 일부 그리고 병참조직·사건비축장비만을 전방배치해두고, 주력은 하와이-알래스카 선에 포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이 협정이 맺어지면 그 자체로 미군의 평시주류를 상당정도로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보다는 유사시 투입되는 미중원공포의 연합작전이 역지력의 주축을 이루게 되고, 주한미군 자체의 역할은 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대목에 이르르면 왜 정부가 지난 해 5월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군제개혁안의 '덜지기 붓파'라는 무리수를 강행했는지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아다시피 이 개혁의 핵심은 '합참의장'에게 3군의 작전지휘권(군명권)을 넘겨 줌으로써, 사실상 군의 모든 권한을 1인에게 집중한 데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의 통합군제'라는 비난을 받은 이 군제개혁의

는, 남북관계의 방위비 부담 규모는 대폭 축소될 것이다. 앞서의 미국의 선례에서도 나타나듯 일단 이 협정이 맺어지면 북한의 방위비 부담액은 대폭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작년에 부담한 적간접 부담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여갈 전망이다.

셋째,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앞서의 중강도 전쟁 전략에 따라 가장 적

으로 상정되는 것은 소련이 아니라, 바로 '북한'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전략의 일환으로서 추진되는 이 협정의 체결을 북한은 적대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후 이 협정의 체결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은 큰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협정은 1988년 하와이에서 열린 23차 연례안보회의에서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이 협정의 체결은 군축에 대한 양국 당국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이자, 민간차원의 평화군축운동의 활성화가 현실함을 대변하는 '산 표적'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최초가 들어간 협정 체결

이후 이 협정의 체결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은 큰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협정은 1988년 하와이에서 열린 23차 연례안보회의에서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이 협정의 체결은 군축에 대한 양국 당국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이자, 민간차원의 평화군축운동의 활성화가 현실함을 대변하는 '산 표적'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최순일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연구원)

가 아니다. 먼저 무엇보다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아니라 '냉전적인 미국의 군사전략에 남한이 한층 깊숙이 편입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 협정이 남한군의 대폭적인 증강을 전제하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 앞서도 봤듯이 이 협정이 맺어지고 그 구상이 실현될 때 남한은 평상시 안보의 주축적인 역할을 맡고, 미군은 보조적인 역할을 차지하게 된다. 이는 다시말해 최근 추진되는 주한미군의 감축이 최소한 그 감축 수준 이상이 남한군 증강으로 이어진다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낳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함께 최근의 주한미군 감축 계획의 본질도 그대로 드러난다. 미국은 지난 해 1월 향후 92년까지 3년안에 걸쳐 주한미군 7천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를 추진해왔다. 이미 잘 알려진바대로 이 계획에 포함된 주된 철수 대상자는 비전투병력이나 군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유류병력으로 남은 병력이었다. 추후 2, 3단계의 감축 계획은 주주의 상황을 보다 신중히 검토한다는 가변적인 수사만을 남긴 채 막연히 제시되고 있다. 앞서도 봤듯이 이같은 주한미군의 감축은 전투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의 제한된 '군살빼기'의 본질을 갖는다.

셋째, 남한의 방위비 부담 규모는 대폭 축소될 것이다. 앞서의 미국의 선례에서도 나타나듯 일단 이 협정이 맺어지면 북한의 방위비 부담액은 대폭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작년에 부담한 적간접 부담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여갈 전망이다.

셋째,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앞서의 중강도 전쟁 전략에 따라 가장 적

으로 상정되는 것은 소련이 아니라, 바로 '북한'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전략의 일환으로서 추진되는 이 협정의 체결을 북한은 적대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후 이 협정의 체결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은 큰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협정은 1988년 하와이에서 열린 23차 연례안보회의에서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이 협정의 체결은 군축에 대한 양국 당국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이자, 민간차원의 평화군축운동의 활성화가 현실함을 대변하는 '산 표적'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최초가 들어간 협정 체결

이후 이 협정의 체결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은 큰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협정은 1988년 하와이에서 열린 23차 연례안보회의에서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이 협정의 체결은 군축에 대한 양국 당국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이자, 민간차원의 평화군축운동의 활성화가 현실함을 대변하는 '산 표적'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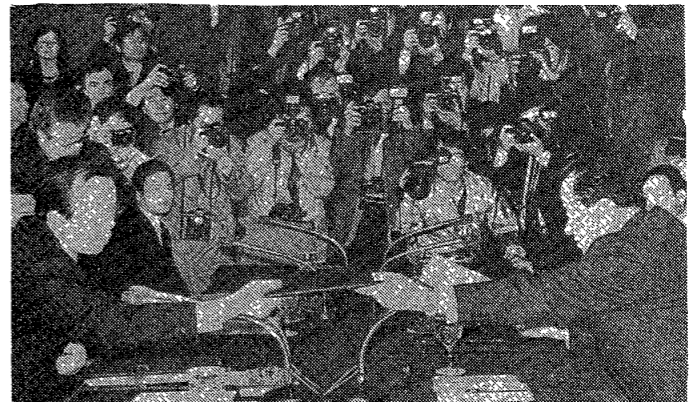
최순일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연구원)

불가침 선언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1. 남북관계의 핵심으로 떠오른 불가침선언

지난해 9월부터 열렸던 남북고위급회담은 남북간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직접 만나 머리를 맞대었다는 점에서 통일을 열망하는 수많은 이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3차례 걸친 회담은 결국은 남북한간의 심한 이견을 노정시킨채 무기한 연기상태에 빠져 향후 남북관계는 불투명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그간 고위급회담에서 나타난 바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불가침선언의 채택에 관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고위급회담의 과정에서 볼 때 북한은 유연하고 양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1차에서 주장했던 3대선결과제를 2차에서 상당히 완화하였고 남한이 주장하는 체제인정문제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호의를 보이고 있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이러한 북측의 태도변경의 배경에는 미국을 추종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란 당분간 요원하다는 현실적 판단이 깔려있고 그러기보다는 불가침선언에 치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유의미하다고 판단한 듯 하다. 또 이런 판단이 나온다는 최근 남북관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이에 따라 남한과 미국의 대북정책이 공개적 모습을 띠며 기인한다.

즉 최근들어 사회주의적 우경화, 실용주의 현상이 따라 남한은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 북한고립 면서 굳이 '기본합의서'만 문득을 일부러 실쳐놓을 필요가 있는나는

'정치군사문제' 해결위한 첫걸음

남한, 채택거부 고립화에도 드러내 북한, 군축협상 들어서는 매개삼아

는데서 드러난다. 이같은 전반적인 유언기조와 더불어 나타나는 북한측의 입장이나 특성은 불가침선언에 대한 강한 집착이다. 최근 제안된 불가침선언의 내용은 주한미군이나 핵무기등의 문제가 배제된 것이었고 3차에서는 남한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정제안을 하면서 까지 불가침선언을 성사시키려는 집요한 모습을 보였다. 불가침선언 문제는 91년 김일성선언사에서 큰 비중으로 강조되고 있어 향후 대남관계의 핵심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불가침선언 채택에 관한 북한이 적극성을 띠고 다가가는데 비해 남한은 그에 관한 논의는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 채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물러서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한측이 주장하는 그 기본합의서의 내용인 교류를 통한 북한개방을 유도하는 미끼인 자정만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남한측은 불가침협정체결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는 결과가 되었고 여기서 양자의 입장의 본질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2. 북한의 노리수와 남한이 회피하는 속사정.

북한은 84년 3차회담을 제안하면서 조미평화협정과 동시타결을 조건으로 남북불가침선언을 들고나왔다. 그러나 85년부터는 조미평화협정체결과는 별도로 그에 맞서서라도 불가침선언을 채택할 수 있다는

로 남한은 군사력증강을 통해서 북한을 끈질기게 때려 부러뜨려 북한이 핵기항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외교적공세를 통해 남한 단독개방을 추진하고 나아가 남한과의 군비경쟁에서 경제적우위를 건지지 못한 북한이 결국 개방요구를 받아들여 흡수되리라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불가침선언을 통해서 노리는 바는 이것의 체결을 통해 삼민주주의 및 남한군의 막강한 무장력을 유지할 명분을 사라지게하고 그들을 통해 민간차원의 평화군축운동 및 통일운동의 활성화에 유리한 고지를 제공하게 되며 또한 삼군비감축명시조항을 통해 향후 실질적 군축협상의 필요를 타율하는 의도를 갖고있다. 결국 북한은 '선언'을 북한이 시종일관 관료적으로 삼고있는 '정치군사문제' 해결'에 들어서기 위한 교두보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군사력적인 물리적 토대없는 스스로 이빨해진 호랑이 일수 밖에 없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남한 측으로서도 본연의 어떠한 군축에 및 평화공세는 결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고, 어떤 명분을 질서서라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공색한 남한측의 거부명분

남한측은 불가침선언 논의에 앞서 경제협력과 신뢰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어야 한다지만 굳이 기본합의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리봐도 논리

적이다. 결국 남한당국의 대응에서 드러나는 것은 대북정책의 핵심이 통일이나 긴장완화보다는 경제협력등 교류를 통한 북한의 개방유도에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4. 맺는 말

남북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은 남북한 공히 내세우는 것이다. 그것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남북불가침선언을 남한 역시 수차례 걸쳐 주장해왔던 것이다. 막상 북한이 "할 수 있는 일까지 양보"(동양인보 12. 13)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지금까지 남한은 기왕에 없었던 선결과제를 내걸면서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은 납득되기 어려운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것은 불가침선언을 둘러싼 양자의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성과를 낳지 못하는 것은 어쩌보면 이 것을 추종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의 평화운동역량의 미숙을 드러내주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형세의 가슴에 겨는 총을 내리고 그 모든 쇠붙이를 녹여 보습과 평기를 만들어 남북의 형제가 함께 머물리니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하려는 이랑을 잡고 가꾸며 그 날을 위해 이데보다도 평화군축운동이 결실할 요구되는 때다.

조임숙

(한학평화운동 연합간사)

콘택트렌즈 단백질제거와 세척을 동시에



부드러운 SPC 액
"단백질 제거가 저질로 된다"

“자극이 없어 부드러워요”

안질환까지 일으키니. 세척과 소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단백질 제거 — 이제 SPC액으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SPC액은 1일 1회 세척으로 단백질 제거까지 동시에 해주며, 수용성제제이므로 부드럽고 자극이 없습니다.

“눈에 이물감이 느껴진다. 시야가 흐리고 눈이 가렵다.” 콘택트렌즈에 단백질이 끼면 렌즈 트러블이 생기고, 심하면 안질환까지 일으키니. 세척과 소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단백질 제거 — 이제 SPC액으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SPC액은 1일 1회 세척으로 단백질 제거까지 동시에 해주며, 수용성제제이므로 부드럽고 자극이 없습니다.

간접 행구어지 자극이 없는 SPC액

특징1 : 3가지 계면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렌즈 표면에 붙은 각종 이물질을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특징2 : 수용성 항균제로 쉽게 행구어지므로 눈에 자극이 없고 착용감이 편안합니다.

특징3 : 하루 한번 세척으로 단백질까지 제거하므로 렌즈 관리가 간편하고 경제적입니다.

SPC 에스피씨 액

●권장소비가격: 1병 5,500원 (2개월분)

■사용방법

1. 렌즈를 세척하여 씻어냅니다.
2. 렌즈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SPC액을 세 번 떨어뜨립니다.
3. 30초간 렌즈 손가락으로 렌즈를 잡지 않고 중의 코르크로 깨끗이 행구어 낸 뒤 착용합니다.

중외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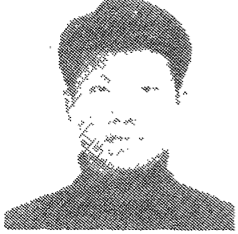
SPC액은 1일 1회 세척만으로 단백질 제거까지 동시에 해주며 1일 관리만 충실하면 렌즈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약국에서 찾으세요.

함께 가야할 길

영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계 영화계의 거장인 아코페티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아코페티감독은 최근 '굿바이 잉글랜드'라는 영화를 선보여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세인들의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는 것은 제작되지 패 시간이 흐른 '몬도가베'라는 작품이다.

아코페티감독의 영화 대부분이 젊은 사회고발성향의 다큐멘터리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몬도가베'를 보면 황당무계함이 끊임없이 계속된다. 우리말로 '개 같은 세상'이라



서창훈 <편집장>

적어도 목격골에서 호호하는 사람들이라면 동대신문을 통해 생존의 이유와 방향을 찾아주고 싶었다.

는 뜻의 제목을 가진 이영화의 한 부분에는 미국의 핵무기실험으로 방향각각을 상실한 태평양군도 비키니섬의 거북이섬이 담겨 있다.

알을 낳기 위해 물에 오른 거북이들은 힘겹게 목적을 달성하기는 하지만 바다를 찾지 못하고 산꼭대기로 올라 가고 만다. 이미 방향을 잃은 거북은 그곳에서 갈팡질팡하다가 물새들의 쫓김을 받으며 태양 아래 달라 죽고 마는 것이다. 산꼭대기의 모래무지가 태평양의 넓고 푸른 바다라고 확신한 채...



더푸른 하늘을 만나기 위해

나만의 꿈과 희망을 찾기위해 방황하다 찾게된 낯설은 곳이 바로 동대신문이었다. 어릴때고 나약한 나의 의지로 부딪힌 새로운 생활의 시작은 나에게 정신과 육체에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고 그런 몸부림속에서 나의 관념과 허위의 껍데기는 벗겨져갔다. 1천여일이 넘는 신문사에서의 생활은 나 자신을 보다 강하게 그리고 현실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 한사회 구성의 일원으로 적극적인 삶을 살게 했다. 학교내에서의 온갖 추잡한 작태와 이기적인 모습을 취재수집에 기록하며 목숨보다 소중한 카메라에 노동자들의 건강한 웃음과, 자분과 권력에 맞서 당당히 투쟁하는 모습을 담을때 느꼈던 감정은 하나뿐이었다. 그것은 언론이 일을 다룬다면 그들이 일어나 외친다는 진리였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기만 했으며 진리가 진리로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찾게 된 것이 슬이었다. 신문사생활과정에서 배움을 수 없는 것이 슬이었고 이자리를 통해 나는 또 다른 세계를 볼수 있었다. 현실에서의 고통이 클수록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속에서 이것은 윤택한 역할을 했다고 느껴진다. 하고자 하는일이 어려울수록 동지간

창훈, 카바레의 왕 진형, 시대가 낳은 고민 권준, 진주 난봉가의 여왕 영란, 개고기 갈매탕 영진, 백마강 달 밤의 운치였던 화을 그리고 잊혀진간 입사 동기들...인 지하 감방의 악당들의 기억이 지워질 수는 없었는지? (그러나 아니길 바란다)

지금 이 시간에도 결코 사랑스럽지 못한 후배들은 피기(퇴임기자)가 되고 있는 역사적(?) 순간에 끊임없이 조종하며 기사 회수를 중용



이만섭 <취재부장>

'뜨거운 감자'가 많은 우리대학 현실을 풀어나갈 후배들의 투쟁을 떠올리면 또 나같은 '선무당'이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서질 않는다.

하고 있다. 마치 1년전에 우리가 그러 했듯이...

"역사는 상호 연관 속에서 변화 발전한다"고 어느 조그만 책에서 읽었던 사실이 문득 떠오르며 또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허탈함에 온 몸 소스라치는 내 자신을 보며 놀란

때로는 우리대학의 모든 아픔을 혼자 책임진양 발가벗고 중무로 일대의 슬이란 슬은 모두 빨아 자기며 미친 짓도 했다. 아픈 조국의 현실을 나의 분신인양 '선무당'노릇도 '감히'했다.

나를 알고 있는 엄청난 수의 형들을 이 좋은 날에 어떻게 고개 들고 만날지 허겁지겁 죽고 싶을 따름이다.

'뜨거운 감자'가 참으로 많은 우리대학의 현실을 이제 주체가 되어 풀어나갈 후배들의 파나는 투쟁을 떠올리면 또 나같은 선무당이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서질 않는다.

'뜨거운 감자'를 식혀 먹든 아니면 더욱 익혀 맛있게 요리해 먹든 우리대학에서 뜨거운 감자에 없애 버려야 한다.

결론을 내야 하는데 추 피기의 결론은 무결론으로 단정지워 버린다. 내것 말고도 동기들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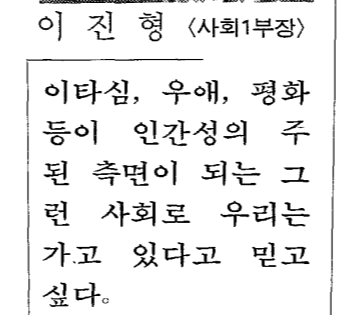
있는 퇴임기가 실력을 감안할때 그래서 4대째까지 추피기의 변은 5백만 원입니다

<불교대 인도철학과>

격변, 수반되는 혼돈

격변 그리고 수반되는 혼돈. 역사의 수레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나의 눈으로 바라본 오늘날의 세계는 이 두 명사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학교가 그랬고 우리사회 나아가서는 국제사회도 그랬고, 대학신문이 그랬다. 나도 그랬나!?

물론, 시련전집. 요즘들 들어 심해진(?) 신문사 후배들의 우리동기들에 대한 홀대를 접하면서 이런 느낌들이 마구 들어 버린다. 내가 격정해야 할 문란들의 격정도 된다. 읽히는 애인같은 기다리는, 추정적인 하지만 아마도 그런 행동사가 어울리는 신문사를 만드는 일이



이진형 <사회1부장>

이타심, 우애, 평화 등이 인간성의 주된 측면이 되는 그런 사회로 우리는 가고 있다고 믿고 싶다.

후배기자들이 이룩하여야 할 몫일 것이다. 더워진다. 가슴이...1년동안 사회부를 함께 이끌어 왔던 임실중은 회춘이. 그들의 출장과 슬때문에 5학년은 다녀야할 작하다 작하고 시끄러운 화음이. "쏘주나 빨리가자"의 만성이. 여자 꼬시는데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영진이. 웬만한 남정내들은 상대 못할(?) 동기중의 흥일정 영란이. 그리고 까먹대기 창춘이. 이들과 함께 신문사, 여관, 조판소등지에서 추로(?) 슬절에서 신문한번 잘 만들어 보겠다고 아옹다옹·티격태격·화기에 했던 기억들...

찾은 외박때문에 늘 마음 고생하시느라 밤잠을 설치시던 어머니, 아버지. 몰심일편으로 도와주신 주간님, 국장님. 무엇보다 우리신문에 애정과 관심을 표해 주셨던 독자여러분들께 내뿜만큼 감사드립니다.

이타심, 우애, 평화 등이 인간성의 주된 측면이 되는 그런 사회로 우리는 가고 있다고 믿고 싶다.

그리고 별다른 표현하고 싶지 않아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하련다. 그때. <사회과학대 사회학과>

아버지의 손

아버지의 고향 예산. 늘어진 산머리와 꼬불꼬불한 길가의 이름없는 자갈밭. 그속에서 부서지는 별빛을 모두가 안으며 눈에 물을 대던 분들. 그들이 바로 아버지의 고향분들이었다.

손바닥만한 땅때기의 자갈을 허리가 구부러지게 끌라도 변함없던 그 땅에 벼를 심고 배추를 심어 굵은 손마디를 만드셨을 내 아버지가 나를 지금까지 버릴수 있게한 그 무엇이었다.

15명 따뜻한 방구석에 누워 이제 그 눈물나는 노동과 삶을 다시 더듬는다.

역사가 개인의 삶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듯 나도 나와 관계된 세계로부터 자유로울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난 아버지의 노동으로 단련된 투박한 손이 자랑스러웠고 또 그손을 사랑한다. 이세계를 건설한 그 투박한 손. 그것이 나를 이치림 잡아매고 있는지 모른다. 탈출할수도, 탈출해서도 안될 그 손의 의미가 나를 돌아보게 하는 반성과 송구스러움의 계기였다. 신문사 생활3년. 대학시절의 4분의3을 보냈고 내 기억의 장에서 죽는 날까지 부끄럽게만 남은 3년이 아



유권준 <사회2부장>

내가 잊어서는 안될 마지막 것은 시대의 뒤안길에서 말없이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들의 짧은 손마디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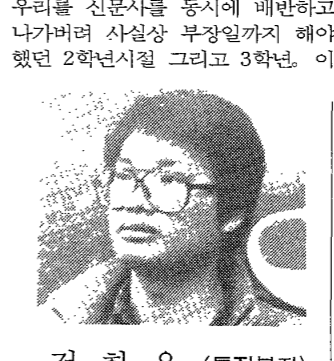
부지의 손과 아버지의 연례를 보면서 더욱 부끄러운 것은 내가 그것들로부터 떨어진 줄은 없다는 나 자신의 구속때문이다. 노동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생명이 없어진 거라는 단순한 진리를 전생과 분단, 가난으로 절친된 내 아버지의 작은 역사속에서 알았던 것. 그것이 내가 신문사에서 얻은 마지막 것이다. 또한 내가 잊어서는 안될 마지막 것은 시대의 한복판에서 끊임없이 저항해야 한다는 것과 시대의 뒤안길에서 말없이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들의 짧은 손마디일 것이다. 어려운 세상하기에, 어지러운 세상기에 신문사를 퇴임하는 오

늘, 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내 가슴속에 품는다. <사범대 지리교육과>

1천일의 끝에서

거의 1천일을 몸담았다가 물러서게 된다. '千日夜話'보다 더욱 파란 단정하다'는 느낌이 앞서고 자랑스러움과 뿌듯함보다는 가슴 저린 미련과 미안함이 더욱 깊이 차지한다.

개인 성격탓에 늘 잘못된 나의 모습을 주목해왔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인가 보다. 수습기자 시절에는 기자에대한 환상과,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신문사일 사이의눈에서 헤어 나지 못했고 워대 기자들이 몽땅 우리를 신문사를 동시에 배반하고 나가버려 사실상 부장일까지 해야 했던 2학년시절 그리고 3학년. 이



정희윤 <특집부장>

후배들은 부디 단결하기를, 단결하여 어떤 난관이라도 돌파해 민중언론과 민주언론매체로 전진시켜 농기를 당부한다.

러한 순차적 과정속에서 늘 힘겹고 어려웠다. 안타깝게도 퇴임하는 이마당에야 왜 그랬는지 알게된다. 미리 퇴임하신 선배들의 퇴임기를 보면 좀더 자신에게 부과된 시간을 성실로 채워가길 당부하였고 나는 '최소한 선배들의 오류를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였다. 그러나 또다른 곤란, 더욱 험거운 곤란에 직면했었고 그것에대한 돌파부정에서 패하였던 것이었다. 신문사라는 조직은 대단히 유기적이기 때문에 임무배분을 효율적으로 해야할 뿐 아니라 개인의 문제이든 전체의 문제이든 단결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개인의 질곡이 조직전반에 작용하여 모두가 힘에 겨워진다 는 사실을 깨달은거다.

후배들은 부디 단결하기를, 단결하여 어떤 난관이라도 돌파하여 민중언론과 민주언론매체로 전진시켜 농기를 바란다. 나는 다만 정론적필의 불 불이지며 학원지주회는 물론 사회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는 상상을 충분히 의식화 시켜가기를 절에서 독려하는 입장이라는게 못내 아쉽다.

기자로서 쓰는 마지막 글도 마무리 지을 때가보다. 기자생활을 하

가면을 벗으며

목이 마르다. 곁잡을 수 없는 갈증에 헛기운이 난다. 정신이 빠르다.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달려오게 만들었는가?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 이 지면은 나에게 한결 남은 가면마저도 벗으라한다. <그때 나의 힘으로 이 가면을 벗어던질 수만 있다면...> 심호흡을 하고 생각을 가다듬는다.

목마른 사람의 갈증을 씻는 한잔의 '물'이 되고자 나름대로 노력했던 지난 3년.

지나간 세월들이-가랑 그것-이 고통으로 얼룩져 있다하더라도-'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채색되어질 수 없다는 것-은 결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어마어마한 미련때문인가?

'좀 더 나은'이라는 한마디로 그렇게 앞만 보고 내달렸던 지난날을 뒤돌아보고 이제 어느덧 정리의 시간을 맞고 말았다.

그때, 처음은 너무나도 화려하게



박영란 <문화부장>

'실천하는 지성'이 되지 못해 괴롭던, '기자'라는 이름으로 '가치중립'을 내세우며 나약함을 감추려했던 씩씩한 기억을 곁머리에 반성한다.

시작했었다. 괜히나 달랑 들고 교정을 헤치고 다닐때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고 한물만들 건물이 기사로 뼈까지 채워질때면 곁잡을 수 없었던 활자의 메카에 온몸을 관통하는 화염로 즐겼던 기억.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즐거움보다는 아픔이 많았음을 고백한다. <지성으로 실천하는 지성>이 되지 못해 괴롭던, '기자'라는 이름으로 '가치 중립성'을 내세우며 적들의 무차별공세에 나약함을 감추려했던 씩씩한 기억앞에 이제 나를 곁머리에 반성한다. '기자'는 더이상 허울 좋은 방패일 수 없으며 객관을 가장한 현실의 외면은 기자이기전의 청년학생의 길이 아님을 말았다.

5월이 얼마남지 않았다. 펼쳐질거나 현실에서 역사를 함께 일구는 동지로 만나자.

<사범대 국어교육과>

내일의 바다로

'나 여기 온방골에서 나의 몸 불살라 나의 참된 삶을 살겠다'는 다부진 각오로 시작한 나의 대학생활. 학과생활에서 충족되지 않은

'뜨거운 감자'를 씹으며

물론 85성상 민족 동국대에서 우리대학 동대신문사 30기(시커먼스

<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과>

<살경대 경영학과>

20살 여성을 위한 에디앙 광고페이지①



여자가 아름다움에 눈을 뜨는 나이, 스무살 그 감각으로, 그 아름다움으로 에디앙이 태어났습니다. 잔잔한 레이스와 실크의 색감이 스무살의 아름다움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하는 에디앙, 누구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스무살이 되면 에디앙과 만나세요.



에디앙 / 그녀는 누구인가?

- 이름: 에디앙 (Etienne)
● 성 별: 여(F)
● 나이: 18세 ~ 23세
● 취 미: 음악감상, 기차여행
● 음식: 국수보다 라면이 더 좋아한다.
● 성격: 유머가 풍부하고, 밝아늘을 좋아한다.
● 이미지: 예쁘고 아름다운 연인을 상징



평생·평등노동 위한 여성들의 함성

제7회 한국여성대회를 다녀와서

"기뻐서 웃어야 할 자리에서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가 사랑하는 딸 수경이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이겠지요"라며 임수경 어머니 김정은 여사는 수경소감을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이효재)이 선정한 올해의 여성상은 '통일의 불꽃' 임수경에게 돌아갔다.

미국에 의해 국토의 허리를 잘린 지 40여년, 임양은 이 땅의 참주인이며, 평화적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젊은이의 뜻을 전 세계에 알리, 이 아름다운 업적을 기리는 뜻에서 상을 받게 된 것이다.

노동·평등노동 일할권리 쟁취하자!"라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여성노동자들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전율을 자아냈다.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나누고 '아느냐 나 딸들이'를 부르는 남성들이 가끔씩 눈에 띄기도 했다.

현재, 가족법 개정, 고용평등 및 특임직위법 제도개혁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집안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기쁨이 아닌 지방자치제 주체세력으로 서기 위해 발돋움하고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평생·평등 노동권 확보를 위하여'라는 91년 중점사업을 선포했다.



○'올해의 여성상'을 대리수상한 임수경의 어머니

통일의 꽃 임수경 '올해의 여성상' 수상

여성의 차별대우, 특이문제 대책 등 토론

이러 '현장의 소리' 순서에서는 연세대 임용희 기호연성이 나와 "과업을 할 경우 해고시키겠다"는 위협에서도 현재 학교직의 협상제 안에 이르기까지의 차별 임금에 대해 이기 위한 투쟁과정-문서보내기, 연세가족 1만명 지지 서명운동 등을 생생하게 나타냈다.

그리고, 동국실업의 나이 어린 당찬 소녀는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인원감소, 사직서강요, 노동조합간부 폭행에도 불구하고 "비록 맞았어도 출근투쟁하고, 경찰차에서 맞고 난지도에 내뿜겨져도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라며 격조를 발휘하는 여가자이던 판성이 터져 나왔다.

현장의 소리 세번째로는 지난해 영유아 보호법을 낚치 통과시켜 민간병의 특아소를 위법, 막상 막성이 터져 나왔다.

현장의 소리 세번째로는 지난해 영유아 보호법을 낚치 통과시켜 민간병의 특아소를 위법, 막상 막성이 터져 나왔다.

이러 '현장의 소리' 순서에서는 연세대 임용희 기호연성이 나와 "과업을 할 경우 해고시키겠다"는 위협에서도 현재 학교직의 협상제 안에 이르기까지의 차별 임금에 대해 이기 위한 투쟁과정-문서보내기, 연세가족 1만명 지지 서명운동 등을 생생하게 나타냈다.

그리고, 동국실업의 나이 어린 당찬 소녀는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인원감소, 사직서강요, 노동조합간부 폭행에도 불구하고 "비록 맞았어도 출근투쟁하고, 경찰차에서 맞고 난지도에 내뿜겨져도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라며 격조를 발휘하는 여가자이던 판성이 터져 나왔다.

동학의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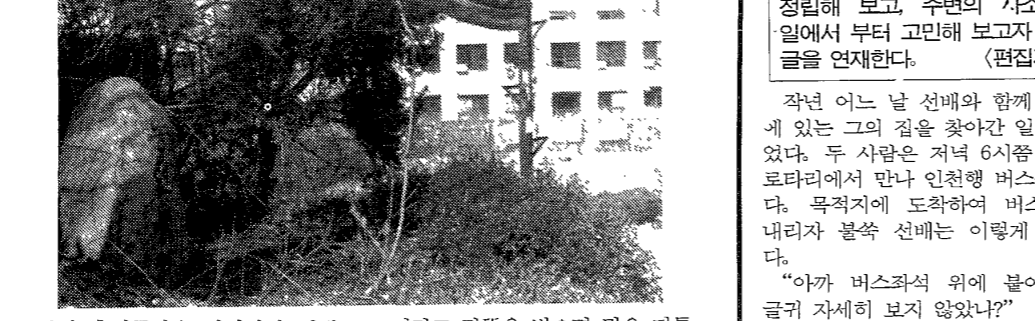
농업동산

동학의 여러곳을 거닐다 보면 눈에 보이는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곳이 많다.

그 가운데 하나가 후문을 들어서서 학생회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특히, 해질 무렵, 맑지 않은 학우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하며 술도 권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그곳이 바로 '농업동산' '작은 터'이지만 여름이면 잔디가 피랴게 올라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곳이다.

'농업동산'은 1972년, '농어촌연구회'가 구농(救農)사상을 기리고, 회원의 자긍심 부활과 학우



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정한 것이다.

이름 기원하기 위해 작은 돌을 세워 '정의와 사랑을 원리로 점진(漸進)과 창의(창의)를 이념으로, 마음과 신의를 자산으로, 근검과 성실로 생활로, 사명과 평화를 생명으로, 고교와 인내를 무장으로, 자강과 반란(反亂)을 목표로'라는 농·연의 뜻을 기렸다.

지금, 한 동아리가 자기네 땅

이러고 말하기를 밖으로 많은 다름이 벌어지지 않자, 당시 농·연은 총학생회와 학우들의 부서로서, 환경이 좋지 않던 '농업동산'을 위한 '실공'을 마련한 것이다.

이 장소가 단순히 술마시는 곳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농민의 굶은 손마디'에 대해 얘기하며, 전시회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의 장소가 될지 바라는 바이다.

(문화부)

당신으로 부터..

대학의 다양한 생활속에서 제기되는 삶의 가치관 문제를 정리해 보고, 주변의 사소한 일에서 부터 고민해 보고자 이 글을 연재한다. <편집자>

작년 어느 날 선배와 함께 인천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아가던 일이 있었다. 두 사람은 저녁 6시쯤 신촌로타리에서 만나 인천행 버스를 탔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버스에서 내리자 불췌 선배는 이렇게 물었다.

"아까 버스좌석 위에 붙어있던 글귀 자세히 보지 않았나?"

"예? 아, 그거 말예요. 좀 독특하네요"

선배는 다소 당황해 하는 나의 답변을 무뎠다며 듣고는 다음과 같은 '엄청난 발견'을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젊었거늘 서서 간들 어떠리" 그 글귀는 사상의 전환이 없으면 만들어지기 힘든 것이지. 잘 생각해 보라구. '노약자 보호석'이나 '경로석'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얼

아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지원을 할수화하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정부정책에 대해 꼬집었고, 평생노동권 확보를 위해 특이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다시금 인식시켰다.

한편, 정당한 노동운동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저지당하고, 수사비리에 대한 규탄시위를 불순세력에 의한 책동이라고 판단내리는 정부의 발표는 분단이 빛아낸 결과임을 주장했다.

따라서, 분단을 유지시켜주는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퇴배, 여성들에 대한 강간 및 성폭력 등 폭력현상의 일반화를 꾀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길은 조국의 통일임을 각인시켰다.

그러기에, '여성운동'이 차별임금 폐지, 평생·평등 노동권 확보 등 '노동운동'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조국통일투쟁과 민주해방투쟁으로 이어져야 함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은 모두 "평화군축 자주교류민족통일 앞장자!"를 외쳤다.

나이가 지방자치제를 맞아 소극적으로 표를 찍는 행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여, 좋은 후보를 내세워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새삼 다짐하는 듯 진지한 자세와 표정을 잃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들은 행사장을 떠나지 않고 헤어짐을 내내 아쉬워 하면서, 하나의 동근원이 되어 통일일을 바라는 '남누리 북누리'를 다시 한번 크게 불렀다. <문>

잠깐 생각해봅시다

'화이트 데이' 즈음해서

2월14일은 여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에게 초콜렛을 주는 발렌타인데이, 3월14일은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화이트데이.

해마다 2월달이되면 중고생에서부터 많은 청년 남녀들은 한바탕 '초콜렛열풍'에 휩싸인다.

웬지 안주면 서운한것 같고 못받으면 또 웬지 섭섭한것 같은 발렌타인데이의 초콜렛과 화이트데이의 사랑.

본디 발렌타인데이는 26년 무렵 순교한 로마의 사제이며 유럽에서 2월14일에 행해지는 제일이다. 그리고 이날 사랑하는 이에게 초콜렛을 선사하는 풍습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상 발렌타인데이와는 큰 관련이 없다.

우리는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는 날이 다가오면 거리의 상점과 벽화점에는 가지각색의 초콜렛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것을 사러 서둘러야 할 사람들의 광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생활주변에 알게모르게 '남의것'이 자리잡고나 있지 않은지.

또하나의 예로써 생일이 돌아오면 하얏고 예쁜 케익이 촛불과 샴페인을 연상하게 된다. 본디 우

리나라 풍속에서는 10세가 될때까지는 생일날 '수수팥떡'을 해먹었다. 수수팥떡을 먹음으로써 어린이에게 있을재앙, 불의의 사고등의 '나쁜기운'을 수수팥떡이 막아 주기 때문에 무병장수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물론 수수팥떡에 대한 이 믿음은 그저 '미신'으로 치부해 버리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수팥떡의 효력이 아니라 그속에 담긴 '우리만의 것'의 소박함이다.

שווי 엘리타라 칭하는 대학생조차 이러한 우리만의 것의 소중함을 부지불식간에 잊어버린채 초콜렛과 사랑의 달착지근한 맛에 현혹되어 있거나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보면 좋아하는 이에게 주는 달콤한 초콜렛과 사랑하나가 무슨 사물인 줄도 모르겠다. 그러나 미처 못 생각하고 그것을 사러 서둘러야 할 사람들의 광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생활주변에 알게모르게 '남의것'이 자리잡고나 있지 않은지.

또하나의 예로써 생일이 돌아오면 하얏고 예쁜 케익이 촛불과 샴페인을 연상하게 된다. 본디 우



"나는 젊었거늘 서서간들 어떠리"

몇 보기에 다 그렇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아주 중대한 차이가 있다!

예측이 불가능한 선배의 발상은 나의 호기심을 알뜰부절하게 만들었다. 청년보도를 건너고 홀로독립되어들면서 선배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세 가지의 글귀는 모두 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지. 하나 그 목적을 이룬 임장과 자세로 실현하게 하느냐, 여기에 분명한 점이 있지. 사람은 누구나 노약자가 자기가 앉은 좌석 옆에 서있으면 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겠다는 긍정적 생각이 그야 어렸든 나 혼자 편하게 앉아서 가고 싶다는 부정적 생각이 서로 갈라지게."

그런데 말야, '노약자보호석'은 사람의 부정적 생각을 강제해내는 데 초점을 맞춰 긍정적 실천을 옮겨가게 하고, '경로석'은 긍정적 생각을 제자 확인시켜줌으로써 부정적 생각을 이기고 긍정적 실천을 하게끔 하지. '노약자보호석'과 '경로석' 사이의 차이도 크지만 그것들과 '나는 젊었거늘...'의 차이는 더욱 뚜렷한 것이다.

외부에서 이미 끝나버린 판단을 실천자가 단순히 이행하게 하려는 반면 '나는 젊었거늘...'은 실천자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만들기 머리로 판단하게 만들단 말야. 또 앞서의 것들이 다분히 의무와 당위에 기초하여 실천하게 만드는

반면 뒤의 것은 자각과 열정에 뿌리내리고 있지. '나는 젊었거늘 서서 간들 어떠리' 여기에는 일종의 낙관주의까지 흘러넘치고 있잖아. 온전히 실천자 스스로를 판단과 행동의 주인으로 만들고 싶잖아. 어느 글귀가 더 큰 효과를 낼 것인가는 말할 필요가 없지.

나는 한방 들어 맞은 사람처럼 얼얼해 있었다. 선배의 이야기는 주어진 삶으로 이끄는 사상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명확히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후 나는 종종 학우들과의 만남에서 '나는 젊었거늘...'과 같은 자제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아직은 멀었구나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동국문화회)

페가미

일과도 잘 사는 사람을 '난당'이라고 그러니. 난당은 대적하기 어려울을 뜻하기도 하지만 좀더 정확한 뜻을 찾아볼 때 난당을 일으키는 무리 즉 한자로 쓸때는 '亂黨'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전후 율복하여 뛰어난 작품을 많이 내었던 작가 이기영은 그의 소설 '두만강'서부터 한 평범한 이난당의 입을 빌어 난당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리고 이어 그 소설의 시발점으로서의 조선말엽 사회상황을 서술하면서 엄청나게 악랄한 지배계급의 수탈상과 동학 농민투쟁이 그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썼다. ▲난당들은 사회구조 안에서 정치권력이나 경제적 부를 독점하는 계급이 아니면 살아남수 없다. 계급

'난당' 盧씨

사회의 추악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계급사회의 피지배 계급은 언제나 알게 모르게 고통이 얹어져 '난당'들의 뱃속으로 빨려들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의 난당들은 점차 세련되다 못해 교활해져 가는 것이다. 우리는 자주 부아오지 않았던가. 정치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같은 페가 비리를 저지르면 우선 민중들의 분노를 무마기 위해 사퇴한 뒤 반짝 구속되었다가 풀려나고 풀려난다. 자본가들의 경우는 새삼스레 언급할 필요도 없고 이들 지배계급에 영합한 졸부들의 처부는 널리 알려진대로이다. ▲'수서'와 같이 자신들의 본질상 어쩔수 없는 배

안박사 TOEIC

1권 경향과 공략법 2권 LISTENING 전략 3권 문법/STRUCTURE 전략 4권 WORD POWER 전략 5권 READING 전략 6권 IDIOM 전략

TOEIC 만점전략 3권

시사 TOEIC 4권

TOEFL 600 전략시리즈 6권

1권 경향과 공략법 2권 LISTENING 전략 3권 문법/STRUCTURE 전략 4권 WORD POWER 전략 5권 READING 전략 6권 IDIOM 전략

시사 TOEFL 4권

TOEFL 600 전략시리즈 6권

신학기 새출발!

—선배들이 배우고 선배들이 자신있게 권하는 (주)시사영어사의 우수교재목록—

사전	엘리트英韓辭典	2,554원
	시사엘리트英英辭典	1,376원
	시사콘사이스英韓辭典	2,582원
	크라온英韓辭典	2,580원
	뉴월드韓英大辭典	2,531원
	뉴월드英韓大辭典	2,972원
	The Random Hous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2,552원
	뉴월드대스크英韓辭典	1,908원
	뉴월드콘사이스英韓辭典	900원
	뉴월드드림英韓辭典	900원
	뉴월드드림韓英辭典	900원
	해외어학英韓辭典	3,000원
	Longman 英英辭典	8,500원
	貿易英韓英語大辭典	1,128원
	미국이디엄辭典	482원
	英作文辭典	680원
	基礎日本語學習辭典	970원

일본어	日本語初歩 (I-II)	4,800원
	Kopanesse	4,800원
	일본어 문법	4,800원
	일본어회화	4,800원
	일본어회화(일본어)	4,800원
	일본어회화(한국어)	4,800원
	일본어회화(영어)	4,800원
	일본어회화(중국어)	4,800원
	일본어회화(러시아어)	4,800원
	일본어회화(프랑스어)	4,800원
	일본어회화(독일어)	4,800원
	일본어회화(이탈리아어)	4,800원
	일본어회화(스페인어)	4,800원
	일본어회화(포르투갈어)	4,800원
	일본어회화(그리스어)	4,800원
	일본어회화(터키어)	4,800원
	일본어회화(러시아어)	4,800원
	일본어회화(프랑스어)	4,800원
	일본어회화(독일어)	4,800원
	일본어회화(이탈리아어)	4,800원
	일본어회화(스페인어)	4,800원
	일본어회화(포르투갈어)	4,800원
	일본어회화(그리스어)	4,800원
	일본어회화(터키어)	4,800원

영어학습	관용표현의 유래	2,400원
	비즈니스영어 실용영어	4,800원
	Konglish (I-II)	4,800원
	미국 영어 이렇게 하라!	4,800원
	미국의 영어실력은?	4,800원
	교실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4,800원
	You Know What? (I-II)	4,800원
	영어회화 1000문	4,800원
	영어회화 2000문	4,800원
	영어회화 3000문	4,800원
	영어회화 4000문	4,800원
	영어회화 5000문	4,800원
	영어회화 6000문	4,800원
	영어회화 7000문	4,800원
	영어회화 8000문	4,800원
	영어회화 9000문	4,800원
	영어회화 10000문	4,800원

영어시험에 강해지는 책	Listening Comprehension	1,200원
	Speaking Ability	1,200원
	Reading Comprehension	1,200원
	Grammar/Structure	1,200원
	Word Power	1,200원
	Idiom Power	1,200원
	Writing Ability	1,200원
	English Proficiency	1,200원
	Vocabulary·GRE	1,200원
	대학 Vocabulary	1,200원
	김영로 Vocabulary	1,200원
	핵심 Vocabulary	1,200원
	종합 Vocabulary	1,200원
	종합 Vocabulary 7주완성	1,200원
	Barron's G.R.E	1,200원
	Word Power 연구	1,200원
	Word Power	1,200원

회화교재	ENGLISH 900	2,500원
	New English 900	2,500원
	Welcome to English	2,500원
	New English Course	2,500원
	SIDE BY SIDE	2,500원
	IN TOUCH	2,500원
	LIFE STYLES	2,500원
	STEP AHEAD	2,500원
	SIDE BY SIDE	2,500원
	EXPRESS WAYS	2,500원
	SPECTRUM	2,500원
	BASIC SKILLS FOR ACADEMIC READING	2,500원
	GREAT AMERICAN STORIES	2,500원
	ESSENTIAL IDIOMS IN ENGLISH	2,500원
	SPEAKING AND SOCIAL INTERACTIONS	2,500원
	BUSINESS INTERACTIONS	2,500원
	CASE STUDIES IN INTERNATIONAL BUSINESS	2,500원

TOEIC 800	1권 경향과 공략법	2,500원
	2권 LISTENING 전략	2,500원
	3권 문법/STRUCTURE 전략	2,500원
	4권 WORD POWER 전략	2,500원
	5권 READING 전략	2,500원
	6권 IDIOM 전략	2,500원
	TOEIC 만점전략	2,500원
	시사 TOEIC	2,500원

TOEFL 600	1권 경향과 공략법	2,500원
	2권 LISTENING 전략	2,500원
	3권 문법/STRUCTURE 전략	2,500원
	4권 WORD POWER 전략	2,500원
	5권 READING 전략	2,500원
	6권 IDIOM 전략	2,500원
	시사 TOEFL	2,500원
	Barron's TOEFL	2,500원
	TOEFL 600 전략시리즈	2,500원